

이재용, 말 대신 '정중동 행보'... 연말 뉴삼성 윤곽 기대

〈삼성전자 회장〉

취임 한 달, 별다른 메시지 없이 글로벌 위기 속 실리주의 경영 집중 사업·투자 등 연말까지 구체화 전망

故이병철 회장 35주기 추도식 참석 CJ일가와 한자리... 화합모드 이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별다른 메시지 없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보폭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 속 실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 연말 인사에서야 비로소 '뉴삼성'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에서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 3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었다.

올해 추도식은 삼성과 CJ도 모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과 함께 사촌지간인 이재현 CJ 회장 등 CJ그룹 관계자들과도 30분 가량 함께 머물렀었다고 알려졌다.

과거 분쟁 탓에 2012년 이후 추도식에서도 만남을 피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올해에는 불발됐지만, 이 회장이 이재현 회장 집에서 지내는 이병철 창업회장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선대회장이 시작했던 삼성과 CJ그룹간 분쟁이 이 회장 대에서 해소된 셈이다.

다만 이 회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지난달 승진으로 새로운 '뉴 삼성' 사업 비전이나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달여간 이 회장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신 회장 취임 후 행보를 비춰보면 '상생 비전'이 첫번째 메시지로 풀이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8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MLCC 원료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다. 회장 승진 후 첫 행보로 광주 협력사를 방문한데 이어, 최근 부산에 삼성전기 FCBGA 공장을 찾으면서도 협력사 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JY 네트워크'도 본격 가동했다. 지난 주 이 회장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피터 베닝크 ASML CEO 등 기업가를 비롯해 빈 살만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와 마크 뢰터 네덜란드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도 만났다. MS와 ASML 등 기업과는 이미 깊은 친분을 유지하는 상태, 사우디에 이어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국가에서도 삼성전자에 깊은 관심과 호의를 보이면서 글로벌 확대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이어서 내년 초까지 해외 출장으로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하노이에 연구개발(R&D) 센터 완공식이 첫 해외 출장지로 유력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을 포함한 글로벌 경영을 재가동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 이전에는 연중 절반 가까이 해외에서 보냈었던 만큼, 해외 회장 취임 후 JY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출장이 시급하

다는 전언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면서 실리주의 경영 방침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당시 승진과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5주기 추도식이 열린 18일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뉴스스

관련해 "회사가 더 중요하다"며 우선 순위를 밝힌 바 있다.

이 회장 삼성 향방은 연말 인사에서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이 회장이 메시지를 낼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사업은

물론이고 지배구조까지 대거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를 맡을 조직이 신설될지 여부를 비롯해 미래 먹거리와 기존 사업 재편 등 여러가지 가능성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S&P 선정 '올해의 CEO'

'글로벌 메탈 어워즈'서 수상 동아시아 철강사 최초 '래거'



에서도 수상하며 4관왕에 등극했다.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3차례 최우수 철강사를 수상한 최초의 기업이 됐다.

최정우포스코그룹회장(사진)이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

포스코그룹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트'가 주관한 제10회 글로벌 메탈 어워즈에서 이같이 밝혔다. 20일 공개했다.

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트는 세계 최대 철강·원자재·에너지 분야 정보 분석 기관이다. 2013년부터 철강, 비철금속, 희귀금속, 알루미늄 등 세계 금속산업과 광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의 CEO, 올해의 기업 등 17개 부문에 걸쳐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에게 시상하고 있다.

최 회장은 동아시아 철강사 중에서 이번 상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 아울러 포스코그룹은 올해의 CEO 외에도 올해의 기업, 최우수 철강사, 올해의 딜 부문

최 회장은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1968년 창립한 포스코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올해의 CEO 수상은 포스코그룹 임직원 모두의 헌신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포스코그룹과 중국 하강그룹의 합작법인 '하강포항기차관유한공사(하강포항)'는 '올해의 딜'을 수상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강판 시장이자 친환경 자동차 강판 시장의 각축장인 중국에서의 전략적 우위 선점을 인정받았다.

/김재용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슬기로운 연금생활

"지금은 연금투자의 시대"

2022.09.07 ~ 2022.12.31

지금 당신의 결정이 100세 시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연금투자는 NH투자증권

타사 이전 고객 / 신규 가입 고객 / 기존 고객 추가납 이벤트		
구분	지금 기준 금액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연금 저축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1만 원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0만 원
IRP	1억 원 이상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1만 원
	3천만 원 이상	3만 원

IV 슬기로운 연금생활

이벤트 확인하기

최대 24만 원의 추가 혜택이 도둑!

이용사 이벤트 확인하기

[이벤트유의사항]
 ※ NAMU계좌, 법인계좌는 제외 ※ 모든 이벤트는 중복증정 가능 ※ 상품권 지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고 유지 시 2023년 1월 중 지급 예정이며,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증정을 위한 마케팅(SMS 포함) 등에는 필수입니다. 미동의 시 상품권 지급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 쿠폰의 경우 사용 유효기간은 발송일로부터 60일이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수신거부, 번호오류, 개인정보 변경에 따른 쿠폰 재발송, 환불요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5만원 초과 혜택 증정 시 발행되는 22% 제세금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단, 해당 소득은 고객님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감축규정 제16조 2항(특별이익제공관도)에 따라 IRP고객의 시은품은 최대 3만원으로 한정됨 ※ 지급기준금액 : 이벤트 기간 최종 순증금액(입금금액-출금금액)
 [투자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금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한도 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며,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통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금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통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RP적립금 평잔에 따라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하며(적립금 평잔 15억원 이하 운용관리수수료 연 0.15%, 적립금 평잔 5억원 이하 자산관리수수료 연 0.1%, 연 후취,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세한 수수료율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평잔: 연간 일차별 평균금액의 평균) ※ NH투자증권 준법실 제2022-08호(2022.09.05~2023.09.0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 제2022-0346호(2022.10.17~2023.01.31)